타자기, 글씨 쓰는 기계

The Type-writing Machine for Hangeul

서문

기계와 시간 속으로

“이 한글 자판은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매일 한글을 두드리며 살지만,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1914년 미국에서 이원익이 최초의 한글타자기를 만들었을 때, 세상에는 ‘타자기’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판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글씨 쓰는 기계.**

그 뒤 속도 중심의 세 벌식과 예쁜 글꼴 중심의 김동훈 다섯 벌식이 저마다의 장점으로 경쟁하며 자판이 난립하던 시대를 지나,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한글 표준자판은 1969년 네 벌식을 제정하고, 이 후 1983년 두 벌식을 표준으로 제정 합니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1995년 타자 검정시험이 폐지되기까지 약 82년. 지난했던 한글 기계화 역사는 조용히 묻혀버립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 역사를 배운 적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은 2026년, 수집가들의 손에 흩어져 있던 타자기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마스터피스에서 표준자판의 갈림길, 공병우 박사의 매킨토시를 지나 오늘의 커스텀 타자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강제로 정해 준 2벌식 한글 자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배우면 평생을 쓸 한글 자판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이 전시는 그 질문을 여러분께 건네고자 합니다.**

Into the Machine, Into Time

“Who made this Hangeul keyboard, and when?” We type in Hangeul every day, yet no one asks.

In 1914, Lee Won-ik built the first Hangeul typewriter in the United States. With no word yet for “typewriter,” its nameplate read in plain Korean: *the machine that writes letters.*

After an era of rival keyboards — the fast three-set and Kim Dong-hoon’s elegant five-set — the government imposed the four-set standard in 1969 and the two-set in 1983. By 1995, when the typing exam ended, some 82 years of history had been quietly buried, never taught in school.

For the centennial of Hangeul Day, we have gathered typewriters once scattered among collectors, from the masterpieces to Dr. Kong Byung-woo’s Macintosh and today’s custom machines. Who should choose the keyboard we learn once and use for life?

전시 후기 설문

QR을 스캔해 전시 후기 설문에 참여하고 **한글날 100주년 키캡 굿즈**를 받아 가세요. 남겨 주신 의견은 다음 전시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VISITOR SURVEY · KEYCAP GIFT

관람 무료 · 10:00–18:00 · 일·월요일 휴관

장소 G밸리산업박물관 기획전시실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G타워 3층)

후원 서울특별시, VRUNCH 브이런치

주관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기획 레뜨로핏(강득주) · 이프노이프(김인지) · 김태호

공간 디렉팅 송은주 **미디어** VRUNCH 브이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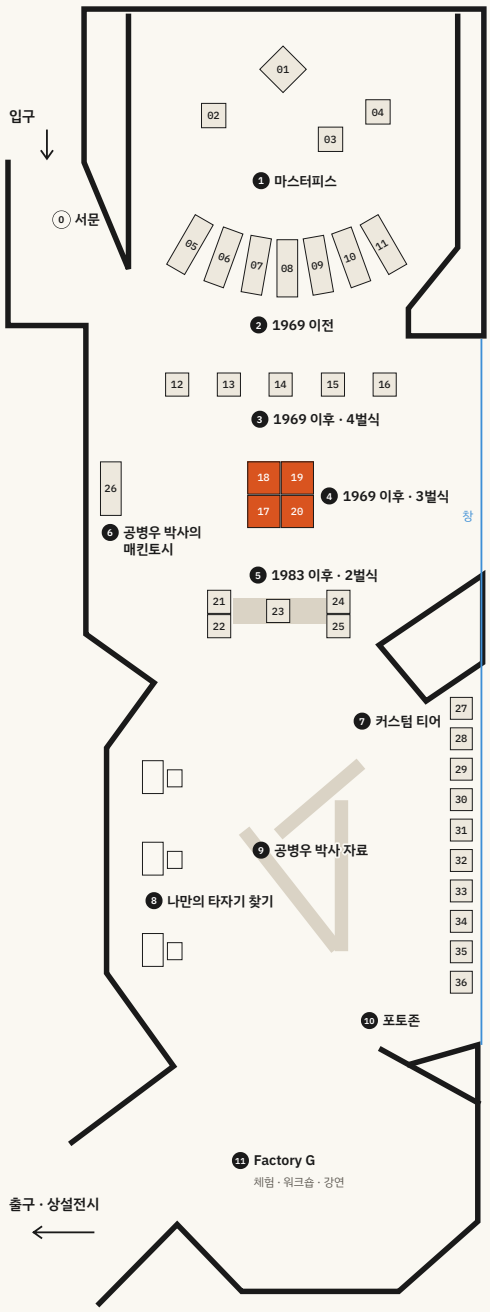
자료협력 국립한글박물관 · 공안과 **협력** 타자기사용자모임

@k_typewriter1914

전시장 안내

타자기, 글씨쓰는 긔계

관람 방향 위 → 아래



0 서문 긔계와 시간 속으로

1 마스터피스 01–04

01 이원익 언문타자기(복원품) 1914 · 5벌식 모아쓰기 · Smith Premier No.10
02 송기주 조선글타자기(복원품) 1934 · 4벌식 모아쓰기 · Underwood 4 bank
03 김준성 타자기 1940년대 · 2벌식 한·영 풀어쓰기 · Remington model 5
04 도덩보 타자기 1959 · 2벌식 한·영 풀어쓰기 · Adler Triumph TIPA

2 1969 이전 05–11

05 공병우 3벌식 문장용 유니온기계공업사 Union120
06 공병우 3벌식 한영201 경방크로바 302
07 공병우 3벌식 체재 Facit 1620
08 공병우 점자타자기 유니온기계공업사
08 휴대용 점자타자기 6점 조합방식 弘誓社 Koseisha · 일본
09 김동훈식 5벌식 타자기 Olivetti Studio44
10 장봉선 5벌식 타자기 Olympia SG-1
11 장봉선 5벌식 타자기 Olympia SG-3

3 1969 이후 정부 표준자판 4벌식 12–16

12 RhythmTouch 한글개조 Underwood · 1970년대
13 Finger Flite 한글개조 Underwood · 1970년대
14 마라톤 379 동아정공 · 1981 · 4벌식 첫 모델
15 마라톤 1000DLX 동아정공 · 1980년대
16 크로바 747TF 경방크로바 · 1980년대

4 1969 이후 공병우 3벌식 17–20

17 공병우 3벌식 한영 301 Union · 1970년대
18 공병우 3벌식 한영 301 동아정공 마라톤 10TR speedy · 1970년대
19 공병우 3벌식 390 Predom 1620 · 1970년대
20 공병우 3벌식 201 경방크로바 302 · 1970년대

5 1983 이후 정부 표준자판 2벌식 21–25

21 마라톤 1000DLX 동아정공 · 1980년대
22 탑스타 10S 경방크로바 · 1980년대
23 온라인 510 한영 경방크로바 · 1980년대
24 뉴스타 10S 경방크로바 · 1980년대
25 외솔 101 정음사 · 1980년대

6 공병우 박사의 매킨토시 26

26 공병우 박사 서체 개발용 컴퓨터 Macintosh SE (Apple Computer) · 1987
공병우 390 전자타자기

7 커스텀 티어 27–36

27 SM9 한글 4벌식 Olympia · 1950년대 · 2023년 개조
28 레테라32 한글 4벌식 Olivetti · 1970년대
29 레테라32 한글 4벌식 Olivetti · 1970년대
30 Monica 한글 4벌식 Olympia · 2026년 개조
31 발렌타인 한글 4벌식 Olivetti · 2020년 개조
32 발렌타인 한글 4벌식 Olivetti · 2024년 개조
33 소소한 타자기 No.3 세로쓰기 Remington model 5 · 2023년 개조
34 시카고 타자기 한글 4벌식 Underwood · 2018년 개조
35 엠베서더 한글 4벌식 Hermes · 2022년 개조
36 로얄470 레고 Royal470 · 1970년대

8 나만의 타자기 찾기 체험

9 공병우 박사 자료

10 포토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11 Factory G 체험 · 워크숍 · 강연

전시 공식 인스타그램

QR을 스캔해 전시 계정을 팔로우하고
한글날 100주년 키캡 굿즈를
받아 가세요.

@k_typewriter1914